

노키아, 열면 풀 키보드가 나타나는 「Nokia 6800」 발표

노키아가 일반 휴대시 스트레이트형 단말이지만 패널을 열면 풀 키보드가 나타나는 신단말 「Nokia 6800」을 발표했다.(사진 위) 이 단말기는 내년 제 1/4분기에 발매될 예정이다.

Nokia 6800은, 900/1800 MHz의 듀얼 밴드 대응의 GSM/GPRS 단말기로, MMS나 Java에 가세해 주소장이나 스케줄장의 데이터의 싱크로를 행할 수 있는 「SyncML」(Phase 1)를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스테레오 FM라디오도 사용할 수 있다. 크기는 119 55 23 mm, 무게는 122g.

이 단말기의 특징은 번호 버튼 부분이 패널장이 되어 있어, 이것을 들어 올리고 여는 것으로 디스플레이를 사이에 두고 풀 키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스플레이도 128×128 닷, 4096색 칼라가 되고 있다.

또 동사는, 내년 2월에 네트워크 통신 게임의 이용에 최적화한 단말 「Nokia N-Gage」를 발매하는 일도 발표했다.(사진 아래) 스펙(명세서)등의 자세한 것은 불명하지만, 동사가 제창하는 Symbian OS를 이용한 휴대전화전용 플랫폼 「Series 60」이 채용된다.

N-Gage에서는, 스탠드 얼론의 게임에 가세해 근처에 있는 동료와는 Bluetooth로, 멀게 떨어진 장소에 있는 유저와는 휴대전화의 네트워크 경유로 통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임은 메모리 카드에 의해 제공된다고 한다. 게임의 제공원으로서 세가의 이름도 오르고 있다.



스카이 웨이브, PDA로 IP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SkyPhone for PDA」제공

스카이 웨이브는 PDA를 이용해 무선 LAN 경유로 IP전화 가능한 소프트 「SkyPhone for PDA」의 제공을 시작했다.

이번에 릴리스 된 「SkyPhone for PDA」는, VoIP의 차세대 프로토콜인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에 대응한 PDA전용 IP전화 소프트웨어로, 음성 Codec은 「G711」를 채용했다.

SIP 대응의 기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MSN 메신저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SIP 대응의 게이트웨이를 경유하면 고정 전화나 PC 등 PDA 이외의 기기와도 통화할 수 있다.

상대의 식별로 필요한 '전화번호'는 메일 주소를 닮은 SIP 주소(개인명@도메인)를 할당할 수 있다. 통화 기능 이외에도, 전화번호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대 상태(통화 가능 등)를 판별할 수 있는 「존재 기능」도 준비되어 있다.

동소프트가 동작하는 PDA는, OS에 Pocket PC 2002를 탑재한 단말로, 도시바의 「GENIO e550G/e550x/e740」, 후지쯔의 「Pocket LOOX FLX2H」 등이다.

야노 경제 연구소 조사, 「IP전화가 PDA의 콜러업이 된다」

일본 야노 경제 연구소는, 2002년 4월~6월에 걸쳐 행한 일본 내 PDA 시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단말 메이커 8사, OS벤더 3사 및 그 외의 관계 각사 등이다.

동 조사에 의하면, 2001년도 일본 PDA 시장규모는 출하 대수에서는 137만 3200대, 전년대비 102.3%과 약간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매출금액수에서는 334억 8300만

엔, 전년대비 63.5%과 대폭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개인 유저는 잇따르는 신제품 발표에 의해, 구입을 미루고 있으며, 법인 유저는, 불황이 부른 투자 의욕의 감퇴에 가세해, 2001년도가 PDA의 검증 기간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OS 별 쉐어로는, Palm OS진영이 PDA 시장 전체의 47%를 차지해 확대 경향에 있는 한편으로, Windows CE진영은 39%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가가 비싼 Windows CE에서는 매출금액으로부터 보았을 경우는 쉐어를 확대하고 있다. 또, Windows CE진영에서는 PDA전용의 신OS 「Pocket PC」를 투입했지만, 대폭적인 쉐어 확대에는 이르지 않고, 향후의 법인 수요에의 움직임이 주목받지만, Palm OS진영에서는 단말 메이커의 철퇴가 있었기 때문에, 2002년도 이후는 대폭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 메이커별 쉐어는, 샤프가 감소 경향에 있으면서도 Linux를 탑재한 PDA출시로 다시 쉐어 탈환을 노리고 있다.

동조사에서는, 앞으로 CF카드나 SD카드 슬롯이 필수이며, 무선 LAN나 PHS등의 데이터 통신에의 대응이 진행되어, 「stand alone의 PC 주변기기로부터 네트워크 기기 'Wireless PDA'가 되어 간다」라고 예상하고 있다. PDA가 나아가, '스마트 폰'이 되어 지고 있는 휴대전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단계에 있어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향후 시장동향에 대해서는 2002년도는 출하 대수로 136만 4500대(전년대비 99.4%), 매출금액수에서는 358억 8500만엔(전년대비 107.2%)로 추정하고 있으며, 무선화에 의해, 핸디 터미널과의 대체나 신규 개발 분야에서 수요가 환기되는 것으로, 현재 PDA 시장의 2할 밖에 없는 법인 수요의 확대



를 전망하고 있다.

또 향후의 PDA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무선 IP전화는 PDA 수요 확대의 키이며, 킬러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한 것 외, 핫 스팟의 보급도 PDA 시장 확대에 공헌한다고 했다.

노키아, 도코모 등 주요 메이커, 3G 단말기 저가격 보급 합의

NTT 도코모, 노키아, 씨멘스, 에릭슨이 W-CDMA 기술의 로열티를 낮게 억제하는 것에 합의했다. 3G 단말의 가격을 싸게 해 보급을 촉진하는 목적에서이다.

NTT 도코모는, 동사와 노키아, 씨멘스, 에릭슨이 W-CDMA 기술의 필수 특허에 대해, 각사가 보유하는 특허수에 응해 로열티가 배분되는 라이선스 방법을 도입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4사는, 세계 통신 사업자의 약 110사가 선정을 표명하고 있는 W-CDMA 방식의 주요한 필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합의에 의해, W-CDMA 기술의 로열티율의 총계를 저율로 할 수 있어 3G 단말의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번 합의는, 일부의 통신 오퍼레이터나 메이커에 대해 3G에 회의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던 것로부터, 5월에 노키아가 W-CDMA의 필수 특허를 가지는 회사에 호소했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 도코모는 「로열티를 낮게 억제하는 것으로 W-CDMA 통신 기기를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3G의 보급에 공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니, 일본 전기, 후지쯔, 마쯔시타 통신공업, 미쯔비시 전기의 5사나 합의 내용에 찬동하고 있다.

비디오 리서치, 브라우저 폰의 이용과 쇼핑 행동의 관련을 조사

일본의 비디오 리서치는, 휴대전화 PHS의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02년 7월 15일~21일까지, 도쿄 35km권의 12~69세의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동 조사에 의하면, 휴대전화 PHS의 소유율은 전체의 74%(휴대전화 : 67%, PHS : 9%)에 이르러,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 대해서는, 나이가 젊을 수록 소유율이 높고, 남녀 20대에서는 벌써 9할 이상의 소유율이 되고 있다. 또, 가장 소유율이 낮은 40~69세에서는 남성이 7할, 여성이



5할을 넘는 결과가 나왔다.

소유자 가운데, 브라우저 폰의 이용율은 빈도별로 보면 1일 1회 이상 브라우저 기능을 이용하는 유저는 15%, 1주간에 1회~6회 이용하는 유저는 37%가 되어, 합하면 2001년 2월에 실시한 조사보다 9 포인트 상승했다. 또 1주간의 이용 비율에서는, 남녀 모두 37%로 성별에 의한 이용의 차이는 없었고, 나이별로는 젊은 층만큼 이용되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남녀 20세 이하에서의 이용이 눈에 띄고 있다.

메일이나 브라우저의 이용에 대해서는, 아침(7~8시), 낮(12시), 저녁(17~18시), 밤(20시 22시) 시간에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것을 평일의 생활 행동과 대조해 보면, 아침은 통근 통학, 낮은 점심식사, 저녁은 귀가나 쇼핑, 밤은 취침이라고 하는 행동이 생각된다. 동사에서는, 휴대전화 PHS가 사람들의 생활 행동에 연동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 외 동 조사에서는, 브라우저 폰의 이용과 쇼핑 행동과의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쇼핑은, 특히 아침, 낮, 저녁에 많이 행해지는 것이 특징으로, 메일 브라우저 폰의 이용을 대조해 보면, 아침 5시~20시까지 도착해 서로의 패턴이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간에 쇼핑을 한 사람 중에서, 직전 1시간에 실제로 메일 브라우저 폰을 이용한 사람의 쉐어를 보면, 메일 브라우저 폰이 많이 이용되는 아침과 저녁부터 밤에 걸쳐, 쇼핑하는 사람 메일 브라우저 폰의 이용자가 높아지고 있다.

동사에서는, 「메일 브라우저 폰의 이용과 쇼핑 개시 행동과의 인과관계까지 언급할 수 없다」라고 서론 하면서도, 「구매 행동에 가까운 곳으로 메일 브라우저 폰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거기에 구매를 환기시키는 것 같은 메세지나 광고에 접촉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Inmarsat, 위성과 휴대전화의 통합 서비스 발표

영국의 Inmarsat는 지난 11월 위성과 휴대전화의 네트워크를 통합한 서비스 「Regional BGAN」를 발표했다. 위성과 휴대전화의 하이브리드(hybrid) 서비스는, Globalstar Telecommunications가 이미 제공 개시하고 있지만, Inmarsat의 서비스는 Globalstar의 배 가까운 176 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반면, Regional BGAN는 모뎀을 사용한 서비스로, Web 열람이나 기업의 파이어 월(fire wall)내에의 액세스라고 하는 데이터 이용으로 한정되어 음성 통화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동서비스는 노트 PC나 PC에 장착 가능한 위성 모뎀을 이용하는 것으로, 위성 네트워크로부터 휴대 전화 네트워크로 전환하고 싶을 때는, 전화기로부터 가입자 특정용의 모듈 카드(SIM 카드)를 떼어 내, 모뎀에 접속한다. SIM 카드는 GSM 휴대전화로 사용되고 있는 IC카드로, GSM 캐리어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가입자 정보가 보관되고 있다.

모뎀의 가격은 1대 1500 달러. 데이터의 다운로드는 1 M아르바이트 당 10~15 달러의 요금이 든다.

노키아 "내년 휴대폰시장 10% 팽창"

최근 휴대폰 수요가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오는 2003년 전 세계에서 판매될 휴대폰 시장 규모는 올해(약 4억대)보다 약 10% 늘어난 4억4000여만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핀란드의 통신장비 업체로 전세계 휴대폰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노키아의 요르마 올릴라 CEO는 지난 3일 미국 델러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휴대폰 시장이 이동통신의 신규 가입자와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전세계 휴대폰 시장 규모가 올해(약 4억대)보다 약 1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세계 이동통신 인구도 현재 약 11억명에서 오는 2005년 약 15억명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서비스 및 장비 관련 시장도 중·장기적으로는 회복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올릴라 CEO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최근 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투자가 계속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통신장비 시장규모가 올해 20% 줄어드는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10% 감소해 최악의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전망은 전날 메릴린치가 '유럽의 휴대전화 사업자에 의한 보조금 제공이 연장된다'라는 전망을 들어, 내년 휴대전화 판매 대수의 신장율 예측을 2.5%에서 18.5%에 상향수정 했던 바로 직후여서 파장이 커졌다. 이같은 신중한 전망에 대해 올릴라는 "불투명한 경기의 장래와 이라크 공격 가능성을 고려에 넣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가트너 그룹 등 전문가들은 "내년 휴대폰 및 이동 장비 시장 성장률이 (노키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를 이뤘다.

한편, Nokia가 진행하는 제3세대(3 G) 휴대전화(비디오 클립이나 인터넷 페이지의 다운로드가 가능) 시장에서의 진출 계획이, 일본에서 성과를 올렸던 것이 지난 3일 밝혀졌다. J-폰의 데이터에 의하면, Nokia의 휴대전화는 NEC나 산요전기의 경합 제품보다 통화 가능 시간이 큰 폭으로 길다고 여겨지는 것이 강점이라고 밝혔다.